

2027
특강
문학

2027 특강 국어 문학 2. 적용학습 현대시 01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초토의 시 1 직전 보강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알고 시험장에 가자!

AI 직전 보강



선생님,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공부하고 있는데, 시의 분위기가 중간에 계속 바뀌는 것 같아서 내용 파악이 어려워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주의해서 봐야 할까요?

이 시는 질문과 답의 구조로 전개된다는 점과 대칭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란다. 1연에서 '봄은 오는가?'라고 묻고, 들판을 걸으며 국토의 상황을 확인한 뒤, 11연에서 '봄조차 빼앗기겠네'라고 답하는 대칭적 구조를 취하고 있지. 특히 4연에서 8연까지는 봄을 맞은 국토를 모성적이고 여성적인 이미지로 표현하며 애정을 드러내는데, 이 부분이 시험에 자주 출제돼.



아, '삼단 같은 머리'나 '살찐 젖가슴' 같은 표현들 말씀이시죠? 그런데 뒷부분에 '다리를 절며' 걷는다는 건 신체적으로 어디가 아픈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좋은 질문이야! 그건 실제 다리가 아픈 게 아니라 심리적 부조화와 정서적 불안을 상징한단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느끼는 '푸른 웃음'과 식민지 현실에서 느끼는 '푸른 설움'이라는 모순된 감정이 공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지. 시험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역설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복합적 심리를 드러낸다는 등의 선지로 출제할 수 있겠지.



그렇군요! 그럼 구상의 「초토의 시 1」은 어떤가요? 전쟁 이야기인 건 알겠는데, '그림자'가 울었다가 웃었다가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설명해 주세요.



「초토의 시 1」에서 '그림자'는 화자의 내면 의식이 투영된 대상이야. 처음에는 전쟁의 참혹함 때문에 '울상이 된 그림자'가 화자를 뒤따르며 절망감을 보여주지만, 잿더미 속에서 편 '개나리'와 아이의 미소를 본 뒤에는 '웃으며 앞장을 서는' 모습으로 변하지. 즉, 화자의 태도가 희망적으로 바뀌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장치란다.

2027
특강
문학

2027 특강 국어 문학 2. 적용학습 현대시 01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초토의 시 1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분석

(가)

지금은 남의 땅 — 빼앗긴 들(일제에 빼앗긴 국토('국토'의 일부분인 '들'로 국토 전체를 비유함.). 주권을 상실한 조국. 화자의 현실)에도 봄(계절적 봄. 광복. '자연의 순환에 따라 찾아오는 계절이면서 동시에 민족이 염원하는 '광복'이라는 중의적 의미를 가진다'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은 오는가?

▶ 1연: 국권(땅)을 빼앗긴 조국의 현실을 인식하고 절망함.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여성적 이미지)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다문 하늘아 돌아
내 맘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
네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워라 말을 해 다오.]([]: '화자의 물음에 입술을 다물고 답하지 않는 자연의 모습을 통해 식민지 현실의 답답함과 암담함을 시각화했다'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 2~3연: 봄을 맞아 기쁘지만 국권 상실의 현실에 답답함을 느낌.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의인법)

한 자욱도 섯지 마라 웃자락을 흔들고
종다리는 울타리 너머 아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 웃네.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대지의 생명력에 대한 고마움)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
너는 삼단 같은 머리(여성적 이미지)를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자연에 동화된 화자)

흔자라도 가쁘게나 가자
마른 논을 안고 도는 착한 도량이
젖먹이 달래는 노래(모성적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자연물에 모성적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다'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나비 제비야 깜치지 마라
맨드라미 들마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아주까리기름을 바른 이가 지심매던 그 들이라 다 보고 싶다.

내 손에 호미를 쥐어 다오
살찐 젖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국토'를 풍요로움과 사랑을 지닌 모성적 존재로 형상화함. '국토를 풍요로움과 사랑을 지닌 모성적 존재로 형상화했다'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을
발목이 시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2027
특강
문학

2027 특강 국어 문학 2. 적용학습 현대시 01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초토의 시 1 기출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지금은 남의 땅 —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다문 하늘아 돌아
내 맘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
네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워라 말을 해다오.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한 자욱도 섯지 마라 웃자락을 흔들고
종다리는 울타리 너머 아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 웃네.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
너는 삼단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쁜하다.

혼자라도 가쁘게나 가자
마른 눈을 안고 도는 착한 도량이
젖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나비 제비야 깜치지 마라
맨드라미 들마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아주까리기름을 바른 이가 지심매던 그 들이라 다 보고 싶다.

내 손에 호미를 쥐어 다오
살찐 젓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시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땅조차 훌리고 싶다.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닫는 내 혼아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우스웁다 답을 하려 무나.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설움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지폈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 이상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

판잣집 유리딱지에
아이들 얼굴이
불타는 해바라기마냥 걸려 있다.

내려쪼이던 햇발이 눈부시어 돌아선다.
나도 돌아선다.
울상이 된 그림자 나의 뒤를 따른다.

어느 접어든 골목에서 걸음을 멈춘다.
잿더미가 소복한 울타리에
②개나리가 망울졌다.

저기 언덕을 내려 달리는
소녀의 미소엔 앞니가 빠져
죄 하나도 없다.

나는 술 취한 듯 흥그러워진다.
그림자 웃으며 앞장을 선다.

— 구상, 「초토의 시 1」

1. (가)에서 국토와 자연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모성적(母性的), 혹은 여성적 이미지를 빌려 표현한 연으로 짜지어진 것이 아닌 것은?

- ① 4연과 5연 ② 4연과 6연 ③ 2연과 5연
- ④ 3연과 8연 ⑤ 6연과 8연

2. 다음 중, (가)의 화자가 갈등상태에 놓여 있거나 모순된 심정에 사로잡혀 있음을 암시하는 것은?

- ①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 ②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 ③ 혼자라도 가쁘게나 가자
- ④ 내 손에 호미를 쥐어다오
- ⑤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고난도 3.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는 일제 강점기라는 비극적 현실에 대한 자각을 바탕으로 한다. 화자는 빼앗긴 국토에 찾아온 자연의 '봄'을 만끽하면서도, 진정한 의미의 봄인 '광복'이 오지 않은 현실 사이에서 고뇌한다. 이러한 인식은 시상의 전개에 따라 심화되며 마지막에 이르러 강한 위기의식으로 표출된다.

- ① 1연에서 던진 질문은 11연에서 우려가 섞인 대답으로 이어지며 시상이 마무리되고 있다.
- ② '푸른 웃음'과 '푸른 설움'의 결합은 국토의 아름다움과 상실의 아픔이 교차하는 화자의 복합적 심리를 보여준다.
- ③ '한 자욱도 셨지 마라'와 '깜치지 마라'는 광복을 속히 맞이하기 위해 우리 민족이 지켜야 할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 ④ '입술을 다문 하늘'과 '들'은 화자가 처한 침묵과 억압의 상황을 드러내며 화자의 답답한 심정을 유발한다.
- ⑤ 11연의 '봄조차 빼앗기겠네'라는 표현에는 국권을 상실한 상황에서 광복의 도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4. (가)의 '빼앗긴 들'이 함축하는 암담한 현실 인식과 그 맥락이 가장 유사한 시구는?

- ① 푸른 하늘 푸른 들
- ② 입술을 다문 하늘아 돌아
- ③ 아주까리기름을 바른 이가 지심매던
- ④ 살찐 젖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
- ⑤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닫는 내 혼

5. (가)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연 단위의 구성을 취하며 1연과 마지막 연이 대응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 ② 시각적 심상을 중심으로 향토적 소재를 활용하여 조국 강산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③ 화자의 내면적 갈등이 대칭적이거나 모순된 이미지를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 ④ 현실로부터 비롯되는 고뇌로 인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포기하는 체념적 어조를 드러내고 있다.
- ⑤ 낭만적 감정에서 현실 자각으로 전환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6. (나)의 시적 화자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현재 상황에 대해 냉소적으로 대응한다.
- ② 이상 세계에 대한 구체적 동경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부정적 현실 속에서도 희망적 태도를 보여 준다.
- ④ 자신의 삶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격려를 기대한다.
- ⑤ 과거에 대한 반성을 통해 바람직한 미래의 모습을 제시한다.

【7~8】 (나)와 <보기>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날로 기우듬해 가는 ⑥마을 회관 옆
청솔 한 그루 꽃꽃이 서 있다.

한때는 앰프 방송 하나로
집집의 새양주까지 깨우던 회관 옆,
그 둑치의 터지고 갈라진 아픔으로
푸른 눈 더욱 못 감는다.

그 회관 들창 거덜 내는 댓바람 때마다
청솔은 또 한바탕 노엽게 운다.
거기 술만 취하면 앰프를 켜고
천동산 박달재를 울고 넘는 이장과 함께.

생산도 새마을도 다 끊긴 궁벽, 그러나
저기 난장 난 비닐하우스를 일으키다
그 청솔 바라다보는 몇몇들 보아라.

그때마다, 삭바람마저 빛질하여
서러움조차 잘 걸려 내어
푸른 숨결을 풀어내는 청솔 보아라.

나는 희망의 노예는 아니거니와
까막까치 얼어 죽는 이 아침에도
저 동녘에선 꼭두서니 빛 타오른다.

– 고재종, 「세한도」

7. (나)와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보기>와 달리 역설적 표현 방식을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② <보기>는 (나)와 달리 시구를 매 행마다 빈번하게 반복함으로써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③ <보기>는 (나)와 달리 감정이입을 통해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④ (나)와 <보기>는 모두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대상을 인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⑤ (나)와 <보기>는 모두 현재형의 시제를 사용하여 상황의 긴박성을 드러내고 있다.

8. (나)의 ⑥와 <보기>의 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⑥는 절망적 상황 속에서의 희망을, ⑥는 퇴락해 가는 힘든 현실을 환기한다.
- ② ⑥는 자연이 가진 아름다움의 영원성을, ⑥는 인위적인 것의 유한성을 암시한다.
- ③ ⑥는 상황과의 대비를 통해 비극성을, ⑥는 주변과의 조화를 통해 긍정적 전망을 강화한다.
- ④ ⑥와 ⑥ 모두 더불어 사는 모습을 연상시킴으로써 공동체의 중요성을 드러낸다.
- ⑤ ⑥와 ⑥ 모두 회상의 매개체로 작용하여 현재 처한 상황의 이유를 짐작하게 한다.

고난도

9. <자료>를 통해 (나)와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료>

시인은 때때로 독자가 잊고 있거나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다양한 소재와 표현 방법을 통해 직시하도록 한다. 그리고 시인은 화자를 내세워 그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으며 어떤 대응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 보여 준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독자는 현실 인식과 대응 태도에 대해 성찰하고 사색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 ① (나)에서는 아이들의 얼굴이 판잣집 유리에 ‘해 바라기마냥 걸려 있다’는 비유적 표현으로 비극적 현실을 제시하고 있군.
- ② (나)에서는 ‘울상이 된 그림자’가 ‘웃으며 앞장을 선’ 그림자로 변화되었다고 노래하며 현실에 대한 대응 태도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군.
- ③ (나)에서는 ‘소녀의 미소엔 앞니가 빠’진 것처럼 희망과 암담함이 교차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군.
- ④ <보기>에서는 절망적 현실에 대해 ‘청솔 한 그루’와 동녘에서 타오르는 ‘꼭두서니 빛’을 보며 희망을 품고 현실을 견뎌내는 대응 태도를 역설하고 있군.

⑤ <보기>에서는 ‘앰프 방송 하나로 / 집집의 새앙 쥐까지 깨우던’ 마을에서 ‘생산도 새마을도 다 끊긴 궁벽’이 되어 버린 농촌의 쇠락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군.

10. (가)의 ‘다리를 절며’와 (나)의 ‘그림자’를 비교하여 김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 ‘다리를 절며’는 신체적 고통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나) ‘그림자’는 화자의 우월한 내면 세계를 상징한다.
- ② (가) ‘다리를 절며’는 현실에 순응하는 태도를, (나) ‘그림자’는 현실에서 도피하려는 화자의 의도를 나타낸다.
- ③ (가) ‘다리를 절며’는 인식의 부조화로 인한 불안을, (나) ‘그림자’는 화자의 심리 상태가 투영된 모습을 보여준다.
- ④ (가) ‘다리를 절며’는 타인과의 유대감을, (나) ‘그림자’는 타인으로부터 소외된 화자의 고독감을 강조한다.
- ⑤ (가) ‘다리를 절며’와 (나) ‘그림자’는 모두 외부 압력에 의해 자아가 완전히 파괴되었음을 암시한다.

【11~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지금은 남의 땅 —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로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다문 하늘아 돌아
내 맘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
네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워라 말을 해
다오.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한 자욱도 섯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종다리는 울타리 너머 아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 웃네.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
너는 삼단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쁜하다.

흔자라도 가쁘게나 가자
마른 논을 안고 도는 착한 도량이
젖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제 흔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나비 제비야 깨치지 마라
맨드라미 들마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아주까리기름을 바른 이가 지심매던 그 들이라 다 보고 싶다.

내 손에 호미를 쥐어 다오
살찐 젖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시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닫는 내 혼아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우스웁다 답을 하려 무나.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설움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지폈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 이상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

판잣집 유리딱지에
아이들 얼굴이
불타는 해바라기마냥 걸려 있다.

내려쪼이던 햇발이 눈부시어 돌아선다.

나도 돌아선다.

⑦ 울상이 된 그림자 나의 뒤를 따른다.

어느 접어든 골목에서 걸음을 멈춘다.

잿더미가 소복한 울타리에

개나리가 망울졌다.

저기 언덕을 내려 달리는

소녀의 미소엔 앞니가 빠져

죄 하나도 없다.

나는 술 취한 듯 흥그려워진다.

㉡ 그림자 웃으며 앞장을 선다.

- 구상, 「초토의 시 1」

11. (가)에서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상통하는 구절이 제시된 연은?

<보기>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해 흔드는
영원한 노스탈지어의 손수건

- ① 1연
- ② 2연
- ③ 3연
- ④ 4연
- ⑤ 5연

12. (가)의 ‘봄’과 ‘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봄’은 자연의 순환에 따라 찾아오는 계절이면서, 동시에 민족이 염원하는 ‘광복’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 ② ‘빼앗긴 들’은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 아래 주권을 상실한 우리 국토를 상징한다.
- ③ ‘봄은 오는가’에 사용된 보조사는 과거와는 달라진 현실의 상황을 드러낸다.
- ④ ‘봄조차 빼앗기겠네’라는 인식은 현실의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민족의 미래마저 상실할 수 있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드러낸다.
- ⑤ ‘들’은 화자가 국권 상실의 아픔을 잊고 자연의 아름다움에만 몰입하여 자아를 실현하는 공간이다.

13. (가)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자연물에 모성적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다.
- ② 계절의 변화에 따른 화자의 심리적 극복 과정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③ 명령형 어조를 사용하여 국권 회복을 위한 민족 공동체의 단결을 촉구하고 있다.
- ④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국토를 상실하게 된 원인을 분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⑤ 대상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통해 현실의 고난을 이겨내려는 화자의 강인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14. (가)의 시상 전개에 따른 화자의 태도 변화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초반부의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후반부에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 ② 봄 풍경에 대한 일시적인 감격이 현실에 대한 냉철한 자각을 거치며 심화된 위기의식으로 귀결된다.
- ③ 자연에 대한 예찬적 태도가 인간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비판적 태도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
- ④ 자신의 처지에 대한 자조적인 인식이 타인에 대한 연민과 용서의 태도로 확장되고 있다.
- ⑤ 외부 세계에 대한 탐색 과정이 내면의 평화를 찾는 과정으로 이어지며 시상이 마무리된다.

15.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대상을 의인화하여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③ 특정한 대상에 대해 관찰한 내용이 제시되고 있다.
- ④ 비현실적인 상황을 제시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⑤ 대조적인 의미의 시어를 제시하여 시적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④

3연은 자유를 박탈당한 조국에서 느끼는 감정을 제시하고 있으며 여성적이거나 모성적인 이미지는 나타나지 않는다. 8연의 ‘살찐 젖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은 국토를 모성적이고 여성적인 이미지로 제시하여 국토에 대한 애정과 생명력을 부여한 표현이다.

① 4연은 ‘종다리’를 ‘아씨’에 비유한 것에, 5연은 ‘삼단 같은 머리털을 감’았다는 표현에서 여성적 이미지가 나타난다.

② 4연은 ‘종다리’를 ‘아씨’에 비유한 것에 여성적 이미지가 나타나고, 6연은 ‘젖먹이 달래는 노래’에 모성적 이미지가 나타난다.

③ 2연은 ‘가르마 같은 논길’이라는 표현에서, 5연은 ‘삼단 같은 머리털을 감’았다는 표현에서 여성적 이미지가 나타난다.

⑤ 6연은 ‘젖먹이 달래는 노래’에, 8연은 ‘살찐 젖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이라는 표현에 모성적 이미지가 나타난다.

2. 정답 ⑤

‘다리를 절며’는 봄날 국토의 아름다움에서 느끼는 기쁨(푸른 웃음)과 국권을 상실한 식민지 현실의 고통(푸른 설움)이라는 두 가지 인식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부조화와 정서적 불안을 상징한다.

① 몽상의 상태, 감격의 상태를 드러내는 표현으로 화자의 갈등상태나 모순된 심정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다.

② 봄기운을 느끼며 일시적으로 느끼는 상쾌함을 표현한 것이며, 내면적 갈등 상황을 암시하지 않는다.

③ 국토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활기차게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다.

④ 국토에 대한 애착을 바탕으로 노동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는 표현이다.

3. 정답 ③

‘한 자욱도 셨지 마라’는 바람이 화자에게 하는 말이고 ‘깝치지 마라’는 화자가 나비와 제비에게 하는 말로, 이는 봄날 국토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격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말일 뿐 민족 공동체가 지켜야 할 원칙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① 1연의 질문에 대해 11연에서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길지 모른다는 우려를 드러내며 대칭적 구조를 보이고 있다.

② 봄을 맞이한 국토의 아름다움에 대한 기쁨과 일제에 빼앗긴 현실에 대한 슬픔이 공존하는 혼란스러운 상태를 의미한다.

④ 화자의 물음에 답하지 않는 자연의 모습을 통해 식민지 현실의 답답함과 암담함을 드러내고 있다.

⑤ [매력적인 오답] 국토를 빼앗긴 상황이 지속될 경우 진정한 의미의 봄인 광복마저 잊어버릴 수 있다는 화자의 절박한 위기의식을 보여준다.

4. 정답 ②

‘빼앗긴 들’은 주권을 상실하여 남의 지배를 받게 된 국토의 현실을 상징하며, ‘입술을 다문 하늘’과 ‘들’ 역시 화자의 물음에 침묵하는 암담한 현실의 상황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① 봄을 맞이하여 생명력이 넘치는 국토의 아름다운 외양을 묘사한 것이다.

③ 우리 민족의 정겨운 옛 삶의 모습과 향토적인 정서를 환기하는 소재이다.

④ 국토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모성적이고 풍요로운 이미지를 부여한 표현이다.

⑤ 현실 상황을 망각한 채 봄날의 아름다움에만 몰입하고 있는 화자 자신의 모습을 성찰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5. 정답 ④

식민지 현실에 대한 암담한 깨달음과 우려가 나타나 있으나, 이를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포기하는 체념이나 자포자기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① 총 11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연의 질문과 11연의 대답이 대응하는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② ‘푸른 하늘 푸른 들’, ‘아주까리기름’ 등 향토적 소재와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

③ ‘푸른 웃음 푸른 설움’과 같은 역설적인 표현과 1

연의 질문-11연의 대답 등의 대칭적인 구조를 통해 화자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⑤ 국토에 찾아온 봄을 즐기는 낭만적 감정에서 현실의 부정적인 상황을 재인식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6. [정답] ③

시적 화자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개나리꽃이 피고,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이 존재하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① 화자의 죄책감이나 ‘울상’ 등은 나타나지만, 냉소적인 태도는 확인할 수 없다.

②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끼는 것은 맞지만, 이상 세계에 대한 구체적인 동경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타인에게서 격려를 기대하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

⑤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맞지만, 화자의 반성은 나타나지 않는다.

7. [정답] ④

(나)는 ‘불타는 해바라기 마냥’, ‘햇발이 눈부시어 돌아선다’ 등과 같이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고 있으며, <보기>에서는 ‘청솔 한 그루 꽂꽂이 서 있다’, ‘푸른 눈 더욱 뜯 감는다’ 등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고 있다.

① (나)와 <보기>에서 모두 역설적 표현 방식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② <보기>에서 반복된 시구는 ‘보아라’가 한 번 반복되고 있을 뿐, 시구가 매 행마다 반복되어 운율감이 형성되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보기>는 ‘청솔은 또 한바탕 노엽게 운다.’에서 (나)는 ‘울상이 된 그림자’, ‘그림자 웃으며’ 등에서 감정이입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나)와 <보기> 모두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맞으나 (나), <보기> 모두 상황의 긴박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8. [정답] ①

(나)에서 화자는 판잣집 유리에 비친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참담한 현실을 인식하고 울상이 되었으나 골목길의 잿더미 속에 피어난 개나리를 보며 희망

을 떠올리게 된다. 한편 <보기>의 화자는 ‘날로 기우듬해 가는’ ‘마을 회관’을 보며 쇠락해 가는 농촌의 현실을 생각한다.

② (나)에서 개나리를 통해 자연의 영원성을 노래하거나, <보기>를 통해 인위적인 것의 유한성을 암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나)에서 개나리가 부정적인 현실 상황과 대비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를 통해 비극성을 강화한 것이 아닌 희망을 발견하게 된다. <보기>에서 마을 회관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긍정적 전망을 강화하고 있지도 않다.

④ (나)에서 잿더미가 소복한 울타리에 핀 개나리는 대비를 통해 희망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공동체의 중요성과는 거리가 멀다. 또한 <보기>에서 청솔이 마을 회관 옆에 있기는 하지만, 이 또한 공동체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것은 아니다.

⑤ (나)의 개나리를 통해 과거를 회상하고 있지 않다. <보기>의 마을 회관은 과거 마을이 활기찼을 때 떠올리는 데 일정 부분 영향을 주고 있다.

9. [정답] ③

‘소녀의 미소’와 ‘앞니가 빠’진 것은 모두 밝고 희망적인 이미지의 소재이다. 특히 이가 빠졌다는 것은 새로운 이가 나올 것이라는 희망적 기대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 이가 빠진 모습으로 웃고 있는 소녀는 순진무구함을 드러낸다. 따라서 이를 통해 희망과 암담함이 교차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① ‘판잣집’은 전쟁의 비참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소재이고, ‘해바라기마냥 걸려 있’는 아이들의 얼굴은 아이들이 가진 천진난만함을 보여준다. 1연에서 두 소재가 대비되며 전쟁의 참상이 부각되어 햇발마저도 돌아서고 화자도 울상을 짓게 된다.

② 2연에서 화자의 그림자는 울상이지만 5연에서는 웃는다. 이를 통해 화자의 대응 태도가 슬픔과 좌절에서 희망과 긍정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④ [매력적인 오답] 쇠락해 가는 농촌의 현실 속에서도 끗끗하게 이를 이겨내고 있는 ‘청솔 한 그루’와 극한 상황에서도 떠오르는 태양의 ‘꼭두서니 빛’은 희망을 품고 현실을 견뎌야 한다는 점을 화자가 역설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⑤ ‘앰프 방송 하나로 / 집집의 새앙쥐까지 깨우던’ 활기찬 마을이 ‘생산도 새마을도 다 끊긴 궁벽’이 되었다고 노래한 것에서 쇠락한 농촌의 현실을 인식할 수 있다.

10. 정답 ③

(가)의 ‘다리를 절며’는 국토의 아름다움(웃음)과 식민지 현실의 고통(설움)이라는 이질적 인식의 공존으로 인한 심리적 부조화를 상징한다. (나)의 ‘그림자’는 처음에는 화자의 참담함을 반영하여 ‘울상이 된’ 모습이었다가, 희망을 발견한 뒤에는 ‘웃으며 앞장을 선’ 모습으로 변하며 화자의 내면을 간접적으로 제시한다.

① (가)의 ‘다리를 절며’는 화자의 의지보다는 심리적 불균형 상태를 암시하며, (나)의 ‘그림자’는 화자의 정서를 투영하는 매개체일 뿐 우월함을 나타내지 않는다.

② (가)의 ‘다리를 절며’는 현실 자각을 바탕으로 하며, (나)의 ‘그림자’ 역시 전쟁의 폐허라는 현실을 직시하는 과정에서 희망을 찾는 것을 보여주므로 도피 의도로 보기 어렵다.

④ (가)의 ‘다리를 절며’는 화자 개인의 정서적 고뇌를 형상화한 것이며, (나)의 ‘그림자’는 고독감보다는 화자의 정서 변화를 보여주는 장치로 기능한다.

⑤ (가)의 ‘다리를 절며’는 화자의 역설적인 이중적 감정을 보여주고, (나)의 ‘그림자’는 화자의 암울한 현실 및 미래에 대한 희망적 태도를 보여준다. 두 시어 및 시구 모두 화자의 자아가 파괴되었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다.

11. 정답 ②

<보기>의 ‘푸른 해원’은 화자의 이상 세계를 상징한다. ‘푸른 하늘 푸른 들’은 희망의 세계, 자유로운 공간 등을 상징한다.

① 국권 침탈에 대한 인식이 드러난다.

③ 부정적인 조국의 상황에 대한 화자의 답답함이 나타난다.

④, ⑤ 봄을 맞이한 국토의 모습과 이를 느끼는 화자의 즐거움이 나타난다.

12. 정답 ⑤

‘들’은 국권 상실의 아픔을 자각하는 공간이며, 화자

는 아름다운 봄 경치에 이끌리면서도 결국 암담한 현실을 깨닫게 되므로 자아를 실현하는 공간으로 보기는 어렵다.

① ‘봄’은 자연 현상인 동시에 화자가 소망하는 국권 회복, 즉 광복의 의미를 중의적으로 지닌다.

② ‘빼앗긴 들’은 남의 지배를 받게 된 국토의 비극적 현실을 의미한다.

③ ‘봄은 오는가’에 사용된 보조사 ‘은’은 과거와는 다른, 일제의 지배를 받게 된 현실의 상황을 드러낸다.

④ 마지막 연에는 국권 상실 상황에서 광복의 도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와 조국을 빼앗길 수 없다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13. 정답 ①

도량물 소리를 ‘젖먹이 달래는 노래’라고 표현한 것은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국토에 모성적 이미지를 부여한 것이다.

② 화자는 현실의 비극을 인식하며 답답함을 느끼고 있으며, 심리적 극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한 자욱도 셋지 마라’나 ‘깜치지 마라’는 봄날의 감격을 표현하기 위한 것일 뿐 공동체의 단결을 촉구하는 것은 아니다.

④ 이 작품은 국권 상실의 아픔과 광복에 대한 염원을 드러내고 있으나, 국토를 상실하게 된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어깨춤만 추고 가네’ 등을 역동적인 이미지로 볼 수도 있지만, 이는 봄날 국토의 활기찬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지 현실을 이겨내려는 화자의 의지가 아니다.

14. 정답 ②

화자는 초기에 봄 경치에 이끌리며 감격을 느끼지만, 결국 들을 빼앗긴 현실에서는 봄조차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된다.

① 마지막 연에서는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라며 현실에 대한 우려와 조국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후반부에 긍정적 인식으로 바뀌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조국의 봄 풍경을 느끼며 기뻐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인간 사회의 부조리를 비판하는 것으로 바뀌지 않았다.

- ④ 조국의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봄 풍경을 즐기고 있는 철없는 자신에 대한 자조는 나타나지만, 이것이 타인에 대한 연민이나 용서로 확장되지 않았다.
- ⑤ 시상은 내면의 평화가 아닌, 암담한 현실에 대한 깨달음과 위기의식으로 마무리된다.

15. 정답 ④

전쟁으로 폐허가 된 현재의 상황에 절망을 느끼던 화자가 개나리와 소녀의 미소를 보고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 미래에의 희망을 품는다. 하지만 비현실적인 상황을 제시한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오히려 ‘판잣집’과 같이 현실적인 묘사가 나타난다.

① [매력적인 오답] ‘판잣집’과 ‘골목’ 등 화자의 동선에 따라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며, 이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② 3연의 ‘울상이 된 그림자 나의 뒤를 따른다’, 6연의 ‘그림자 웃으며 앞장을 선다.’에서 그림자를 의인화하여 화자의 심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③ 화자는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모습과 개나리, 소녀의 해맑은 미소를 관찰하고 있다.

⑤ ‘판잣집’, ‘잿더미’와 같은 부정적인 시어와 ‘개나리’, ‘소녀의 미소’와 같은 긍정적인 시어를 대비하여, 전쟁의 상처로 인한 비극을 극복할 희망을 발견하는 시적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6. 정답 ③

⑦은 나의 뒤를 따르고 ⑧은 앞장을 서고 있으므로, ⑦과 ⑧ 모두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⑦과 ⑧은 화자의 내면 의식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것일 뿐, 내면을 성찰하거나 앞날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다.

① ⑦은 ‘판잣집 유리 딱지’, ‘잿더미’ 등과 함께 참혹한 현실을 드러내는 부정적인 이미지에 속하고, ⑧은 ‘해바라기’, ‘햇발’, 망울진 ‘개나리’, 언덕을 달리는 ‘소녀의 미소’ 등과 함께 현실을 극복하려는 긍정적 이미지를 나타낸다.

② ⑦은 전쟁의 참상을 속에서도 천진한 모습을 보이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화자가 자괴감과 비애를 느끼는 모습이고, ⑧은 개나리와 소녀의 미소 속에서 비극을 극복할 희망을 발견하고 힘을 얻는 모습이다.

④ ⑦이 화자를 뒤따르는 모습은 화자의 소극적인 태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고, ⑧이 화자를 앞장선 모습은 화자를 인도하는 듯한 모습으로, 화자의 태도가 적극적으로 바뀌었음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⑤ 이 시에서 화자의 현실 인식과 태도는 ‘그림자’를 통해 구체적으로 형상화되고 있는데, ⑦은 전후의 비극적 상황을 인식하는 화자의 내면 의식을, ⑧은 미래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인 인식을 보여 준다.

17. 정답 ⑤

앞니가 빠진 소녀가 짓는 미소는 화자가 전쟁 후의 폐허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되는 계기로 작용한다. 이때 빠진 앞니는 이가 다시 돌아날 이와 희망적 미래를 상징한다. 따라서 아직 아물지 않은 민족의 상처를 나타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① ‘판잣집’과 덕지덕지 이어 놓은 ‘유리 딱지’는 전후의 비참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시어 및 시구이다.

② 전쟁 후 비참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해바라기마냥’ 천진무구한 아이들의 모습은 전쟁의 비극성을 더욱 부각하는 효과를 준다.

③ ‘잿더미’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의 상황을 보여주는 소재이다.

④ ‘개나리’는 희망을 상징하는 시어로, ‘개나리가 망울졌다’라는 표현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18. 정답 ⑤

‘소녀의 미소’를 본 화자가 ‘술 취한 듯 흥그러워’지고 ‘울상이 된 그림자’가 ‘웃으며 앞장을 선다.’에서, ‘소녀의 미소’로 인해 화자의 마음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화자가 아이의 모습에서 전쟁의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미래를 봄으로써 갖게 된 마음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쟁으로 폐허가 된 조국의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① ‘아이들 얼굴’이 ‘판잣집 유리딱지’에 걸려 있다는 것은 전쟁 직후의 열악한 상황과 천진한 아이들을 함께 제시하여 폐허가 된 현실의 비극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